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최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현근

선교연구원, 변화속에 학생모집

전체과정 이수자는 총회선교훈련원 학점으로 인정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7시, 총 36주 과정으로

교인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고취시키고 바른 선교적 이해를 돕기 위해 서 상실로 운영되는 총현선교연구원이 금년들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작년까지는 매주일 오후 3시부터 모였지만 금년부터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7시까지로 바꾸어 대학생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일에 모임 경우 대학부와 청년부의 집회 시간과 겹쳐져 원하는 사람들이 강좌를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선교연구원은 그동안 커리큘럼을 조정하여 3개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과정(초급, 중급, 고급)을 마친 사람에게는 총회선교훈련원(M. T. I)의 학점 취득으로 인정하게 됨으로 앞으로 총회선교훈련원 입학시 그만큼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교회적으로는 선교연구원 졸업생은 당회의 결정에 의하여 총현교회 파송 평신도 전문인선교사의 자격을 갖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선교위원회 위원장(노광현 장로)이 밝힌 대로 21세기를 불과 5년 앞두고 우리 총현교회가 21세기 세계선교를 위한 새로운 선교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한 면이기도 하다.

이제 세계 교회의 추세나 한국 교회

의 분위기 등으로 볼 때 선교는 모든 믿는 자의 가슴에 제철차적인 것으로 와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선교보다는 다른 즉 개교회의 성장과 자신의 평안한 삶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에 해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도 한국 교인들의 선교적 인식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선교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교회는 물론 교구와 교회학교까지 이러한 선교적 인식을 갖고 선교에 직접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선교연구원의 변화가 주목된다. 시간대를 바꾸고 선교연구원의 위상을 높여 보다 실제적인 커리큘럼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선교연구원에 성도들, 특히 대학생,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선교연구원의 96년도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내용

1) 초급과정: 성경에 기초한 선교이론

구약과 선교 / 신약과 선교 / 선교의 역사 / 최후의 개척지 /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 보내는 자와 가는 자 / 기도

합주회 / 지역교회와 선교

2) 중급과정: 선교 정탐 훈련

미전도종족 선교원리와 전략 / 미전도종족 선교의 성경적 기초 및 개념이해 / 지역교회 내에서의 종족 입양의 중요성 / 종족연구를 위한 문헌 연구방법 / 선교 정탐에 있어서의 정보화 전략과 응용지역 연구로서의 미전도종족 연구 / 선교 정탐에 있어서의 상황화 전략 / 종족연구를 통한 전략도출

3) 고급과정: 선교학 관련학문 및 선교실제

지역학 / 문화인류학 / 선교사 후원 / 선교사의 삶

2. 교육방법

1) 교수강의 - 총회선교훈련원 교수진의 탁월한 강의(바인더 교재)

2) 보고서 - 과제물 및 책 요약

3) 세미나 발표 - 연구발표

3. 교육일정(8개월 과정)

1) 초급과정:

1996년 2월 - 3월(2개월)

1월 27일(개강예배· 오리엔테이션)

2) 중급과정:

1996년 4월 - 6월(3개월)

7월중 단기선교훈련

3) 고급과정:

1996년 9월 - 11월(3개월)

12월 7일 졸업식(전과정 이수자)

4. 교육일시 및 장소

1)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7시

2) 장소: 베다니홀

5. 교육진행

5:00-5:15 경건예배

5:15-6:45(90) 강의

6:45-7:00(15) 반별모임

6. 교육행정

각급 과정별 수장이 가하나 전체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수강과목을 총회선교훈련원의 학점취득으로 인정함

96학년도 1학기 장학생 모집

장학회에서는 1996학년도 1학기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선발대상은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중등, 고등, 대학, 청년부에 재적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및 신학원생(교회가 인정하는 신학원)으로 교회 소정양식과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소속 부장과 위원장 및 교구 교역자와 교구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① 장학금청원서(소정양식) 1통 ② 이력서(소정양식) 1통 ③ 사진(증명사진) 2매 ④ 서약서(소정양식) 1통 ⑤ 입학허가서 사본 1통 ⑥ 주민등록등본 1통 ⑦ 국제증명서 1통 ⑧ 전(前) 학기 성적증명서 1통 ⑨ 재산증명서 1통 ⑩ 제학학교의 장학금 마수해 증명서 1통 이다.(※ 중·고생은 ⑦, ⑧, ⑩ 제외)

신청기간은 1월 7일(주일) ~ 2월 4일(주일)까지이고 신청장소는 교육국(교육관 103호)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신학원생 및 대학생은 일백만원, 고등학생 십오만원, 중학생은 십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오는 3월 10일 찬양예배시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다.

원로장로 추대 오늘 11부 예배시

헌법 정치 제5장 5조에 있는 원로장로에 관한 사항을 보면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노후에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 명예를 보증코자 하면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연권회원이 된다.'라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는 지난 주일 공동의회를 거쳐 1월 10일 당회에서 한명욱, 윤종순, 조현명, 김기정, 윤종성 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기로 하고 오늘 11부 예배시에 원로장로 추대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학원전도회 겨울수련회

각 학교 헌직 교사들로 조직되어 있는 학원전도회(회장 임복섭 집사)에서는 각 학교의 방학을 이용하여 1월 19일(금) 총현기도원에서 학원전도회 겨울수련회를 개최한다. 헌직 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일정은 일단 교회에 모여 오전 9시에 교회를 출발, 10시부터 기도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6시에 교회에 도착, 96 청지기훈련에 합류하여 함께 훈련받게 된다.

'96 충현청지기 훈련

1월 19, 26일 금요일에
강사에 김창인·윤영탁 목사

본교회 교육훈련원 산하 성경연구원에서는 '96 충현청지기훈련을 1월 19일(금)과 26일(금)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성령이 충만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헌신케 하여 교회를 성장케 하는 데(답후 2:15) 그 목적을 두는 이번 청지기훈련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봉사와 전도로 열매맺자! '죽도록 충성하자!'라는 목표 아래 본교회 본당에서 실시된다. 주제 성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주제 찬송은 378장(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이다.

훈련대상은 제직 전원(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관찰)과 각부서 봉사자(교구일꾼, 교사, 찬양대원, 각 전도회원, 양육부원, 교회직원, 청년·대학부 임원, 차량관리부원), 그리고 평신도중 원하는 자들이다.

각교구에서는 교회일꾼 전원이 청

지기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해당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해를 시작하며 각자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분명히 하고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날 (1월 19일)

8:00 - 9:00 설교(김창인 목사)

'천국 일꾼은'

9:00 - 10:00 기도회(인도: 김점곤 목사)

'제직을 위한 기도'

· 둘째날 (1월 26일)

8:00 - 9:00 설교(윤영탁 목사)

'청지기와 부서 봉사'

9:00 - 10:00 기도회(인도: 현상민 목사)

'교회 각부서를 위한 기도'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

(시 8:1-9)

본 문은 다윗의 장군시절 초기의 저작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보여줍니다. 양을 치던 시골 목동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형들을 면회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멸시하며 저주, 헐박, 공갈을 하는 원수 골리앗을 만납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 싸워서 둘 두 알도 던지지 않고 첫 알에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어 구국공신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훈련 한 번 받지 못한 시골 목동이 장군이 되었는데 그때에 지은 시가 이 시편 8편입니다.

1.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이 어떠합니까

(1) 하나님이 영광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8:1)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주를 지으신 권능의 창조주이시고, 서로 도와가며 살도록 돌보아 주시는 지혜로운 사랑의 섭리주이시고, 선한 열매 맺은 자에게는 상급으로, 악한 열매 맺은 자에게는 형벌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십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보니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땅에만 꼭 찬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까지 퍼졌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일약 장군이 된 다음에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합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린아이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골리앗처럼 강한 자를 처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어린아이로 하여금, 원수와 의인을 괴롭히던 자의 입을 봉해 버리십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뿔내던 장군 골리앗, 둘 하나 얻어 맞고 나가 떨어지지 말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칼 한 번 써 보지 못했던 다윗이 온 나라에 훈련받은 군대가 벌벌 떨고 있던 원수, 천하의 골리앗을 둘 하나로 처치해버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영광을 생각해보니 참으로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

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는 첫째, 순진하여 무엇이든지 섞인 것이 없습니다. 욕심도 교만도 미움도 섞이지 않은 자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실 때에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을 쓰는 사람은 안쓰십니다. 둘째, 어린아이는 자기 모습 그대로입니다. 분바를 줄도 모르고 땀씨땀 줄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셋째, 어린아이는 또한 겸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순진하게 전쟁 무서운 줄도 모르고, 골리앗 무서운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 믿을 때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간 다윗을 써 주셔서 강한 원수로 입을 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어린아이를 들어 강한 자를 물리치시는 위대한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창조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8:3)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기서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태양의 열이 식어진 적이 언제 있으며, 지구 덩어리의 날아가는 속도가 줄었다 빨랐다 해본 적이 언제 있고, 춘하추동이 언제 바뀐 적이 있습니까? 봄이 지나면 여름이 벌써 성큼 날아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우주를 보오니 크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변동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4)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8:4)라고 찬양했습니다. ‘권고’란 돌보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생들을 권고하십니다. 인생 사십육역 가운데 나 하나, 사십육역 대 일, 우리는 바닷가의 모래 한 알과 같습니다. 이 지구덩어리는 우주에 있는 별들과 비교해보면 바닷가의 모래 한 알과 같습니다. 이렇게 큰 우주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간을 그렇게도 세밀히 살피 주실까요?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 “하늘에 별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저걸 다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써 주셨구나” 너무나 무 좋아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성도를 돌아보아 주시는데 성도들이 하는 일이 안되는 것을 통해서도 돌아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생들을 권고하십니다. 인생 사십육역 가운데 나 하나, 사십육역 대 일, 우리는 바닷가의 모래 한 알과 같습니다. 이 지구덩어리는 우주에 있는 별들과 비교해보면 바닷가의 모래 한 알과 같습니다. 이렇게 큰 우주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간을 그렇게도 세밀히 살피 주실까요?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아 주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대로 안되는 일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더 받는 사랑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2.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 어떠합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8:5-8)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천지 만물을 손가락으로 지으실 때에 사람을 만물과 같이 짓지를 아니하시고 특수 제품으로 지어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특별히 지우셨구만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구만요.” 인간의 육신은 천사보다 조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세상에 오실 때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세상 떠나면 천사보다 낫습니다. 부자집 대문 밖에서 잔치집 부스러기도 못 얻어먹고 배를 곯리던 거지 나사로가 죽으니 천사가 받들어 갔습니다.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인생은 천사보다 떨어집니다. 천사보다는 못하지만 만물을 다스리고 이용하는 권리와 지혜를 받았습시다. 들에 있는 짐승, 바다에 있는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전부를 인생이 주관하고, 이용하고, 생활에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을 받았습시다. 이 얼마나 놀랍게 지으셨습니까? 코끼리나 소가 아무리 힘이 세어도 우리의 종이고, 사자가 아무리 뛰고 야단을 쳐도 인생의 장난감입니다. 하얀 물거품을 뿜으며 사십킬로, 오십킬로 빨리 나가는 무시무시한 악어도 겹데기 벗기어 핸드백이 되고 허리띠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에 특수하게 지으셨는데 천사보다 조금 못한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시민, 벌써 천사보다 높은 이름을 가졌고, 세상 떠나면 천사보다 높아집니다. “**그 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켜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내 영혼 들어가겠네**”

3.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8:9)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니 이름이 아름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는데 알고나니 너무나 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처치하고 돌아와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마침내 임금으로 써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 앞에서나 자랑합니다. “**나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든지 찬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을 찬송할 자격이 있습니다. 어린애가 부모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만 믿는 믿음, 어린애가 정직하고 꾸밈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를 내놓는 정직한 신자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어린애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만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만물에 유익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고 죄를 범하면 만물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고 만물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나무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서 나무를 자기 주인이라고 합니다. 인도 사람은 소를 섬기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코끼리를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잠깐 있다 천사보다 높아질 것을 알면 만물을 이용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며, 만물의 종되는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로 쓰면서 잘 살라고 주신 만물을 바로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이 땅 위에서 날마다 커지다가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 소망한다

1996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고 해서 어제와 다른 태양이 솟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해가 바뀌면 지난 해를 회고해보며 지난 해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새해를 전망하게 됩니다.

새해에 발간되는 주간충현 350호, 351호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소망들을 주간충현 독자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면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실을 수는 없고, 우선 각 위원회 위원장과 각 부서장의 새해 소망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새해 소망들을 넘치게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출판국

더 감동적인 신문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게 되기를

출판국장 조 선 근 장로

새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금년에도 출판국에서는 교회내의 문서출판에 관한 기획, 원고 작성 및 수집, 편집, 제작에 관한 업무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일마다 대하는 <주보>와 <주간충현>을 매 주일 발간하고, 가정예배와 구역예배의 지침서인 <충현의만나>를 달마다 발간하며, 신앙교양지로 연 4회 <계간충현>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교회요람>을 발간하며, 또한 원로목사, 당회장의 저서 같은 단행본과 기타 교회의 필요에 따른 출판물도 힘이 닿는 대로 발간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출판물들을 냄에 있어서 우리들은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특히 <주간충현>이나 <계간충현>에 다양한 내용들을 다양한 기획과 편집으로 알차게 만들려 합니다. 기본 편집방향은 주로 교회의 5대 목표를 지향하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 만들려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출판국에서 출간되는 모든 간행물들이 한번 읽고 버리는 심심풀이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들을 대하는 독자들이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소망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의 도움과 사랑의 채찍이 필요합니다. 각 교구나 교회학교 부서들에서는 <주간충현>을 위해 통신문(직원기자)을 한명씩 선정하시어 좋은 정보와 기사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굳이 크고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스며 있는 훈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새해에는 <주간충현>이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신문으로서, 보다 더 감동적인 신문으로서 한걸음 더 모든 성도들의 가슴속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연구원

열매를 거두는
실효성있는 교육할터

성경연구원 원장 강 협 장로

96년 소망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현의 각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결실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금년에도 교회 성경연구원에서는 천국 일꾼 양성을 위하여 1. 직분자 양육 2. 주간 성경공부 3. 교사양성부 4. 찬양대원양성부 5. 교사연장교육 6. 양육교육과 같은 과정을 설정하고 전·후반기로 나누어 연중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매년 충실한 교육 실시로 일정한 수준의 향상과 실질적으로 많은 교육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각 과정의 교육목표에 비추어 볼때 1.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고 체계있게 공부해 왔으나 실생활의 적용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을 받고도 정경 교사로서 충실히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3. 원로목사로서 양성함을 받고서도 봉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4. 평신도 지도자로 양성함을 받았으나 영성훈련의 부족으로 실효성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96년도에는 이를 보완하여 배움에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여 열매를 거두는 실효성있는 결과가 있기를 각 위원회별로 기대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셔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잘 보존토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의 길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한 진리가 있습니다. 어느 사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믿고 생활로 실천하는 나라와 민족은 지난 날을 회개하고 앞으로 오는 날은 발전의 날로 계승하는 슬기로움을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 진리를 믿고 본받아 지난 날의 모든 죄악의 비리를 근절하고 공의로운 새 질서와 새 한국을 건설하는 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질서에서 우리 성도들에 생각해야 할 점은 공의와 민족 복음화라는 크나큰 명제입니다. 공의로운 질서와 함께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공의로 현실화될 때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민족복음화를 갈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결같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복음화를 위해

1.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웁시다.

2. 말씀을 통하여 성령충만함을 받읍시다.

3. 기도로 무장을 합시다.

4. 봉사와 전도로 열매를 맺읍시다.

5. 죽도록 충성하는 청지기가 됩시다.

6. 지식으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여 확실한 성과를 거둡시다.



때마다 일마다,
저희와 동행하옵소서

제2-1교구 담당 최 순 복 전도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해주신 예언에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갖게 되는 소망이지만 금년에도 저 자신은 물론 원로목사님 이하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더욱 건강하고 성령충만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길었던, 그러나 어찌보면 짧은 지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필설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금년으로 저는 현직 전도사로서의 사명을 마치게 되는데 끝까지 은혜와 충성으로 잘 감당하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세 주셔서 그 어떤 곳에서도 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허락된 지면에 새해를 맞이하며 바라는 기도제목과 소망들을 적어봅니다.

첫째, 원로목사님 더욱 건강하시어 그 평생의 기도제목, 백두산 소나무 적어 평양에 예배당 짓는 날을 속히 허락하옵소서. 금년엔 우리 교회에 비어 있는 당회장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여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꼭 보내주옵소서.

둘째, 온 교회가 성령충만하여 당회에서부터 온 심도들이 하나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 소문나게 하옵소서.

셋째, 우리나라 전경은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대통령 내외분 더욱 강건하고 능력 있게 국정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모든 장애인들과 환자들에게 건강과 소망을 주옵시고, 모든 군경과 공무원과 청소년들을 축복하옵소서.

언제나 부족한 것이 구하고 간구한 것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금년 한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과 때마다 일마다 동행해 주시기를 한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안수집사회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시면
주저마시고 교육관 114호실로

안수집사회 회장 전 흥 렬 전사

하나님의 크신 축복 속에 9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안수집사회의 회장으로 세워주셔서 큰 일을 하게해 주신 것에 우선 감사를 드리며 96년 한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수집사회를 주의 뜻대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96년과 마찬가지로 안수집사회에서는 올 한해도 교회의 곳곳에서 봉사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수집사회는 95년 73명이 안수집사로 봉사하였으나 올해는 113명으로 인원에 증가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다보니 늘 장소가 부족해서 한 자리에 다 모이기도 힘들었고 또 체계적인 봉사 열정을 짜기도 어려워서 기도하면서 교육관 114호실이 안수집사회 장소로 제공되었습니다. 이제 보다 넓은 장소에서 매주일 이곳에 모여 친교도 하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역논하기로 하였습니다. 넉넉한 장소가 마련되었으므로 충현의 안수집사는 누구든지 주일이면 한번씩 이곳에 들리 모이기에 힘쓰는 안수집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안수집사회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봉사의 손길을 요청하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교육관 114호실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수집사들은 교회내의 각 부서에서 부장·부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기도의 끈을 늦추면 안된다는 생각에 매주 월요일은 새벽기도회

새해에 소망한다

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1부 예배시에 헌금 당번으로 봉사하면서 교회의 모든 공집회에 참석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숙한 예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내의 부지런한 발이 되기 위해서 교회내의 부서지원, 어려운 교인지원, 농어촌 교역자 및 선교사에게 신앙 정기 간행물 보내기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나니 이 많은 일들을 미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합당한 능력도 함께 주실 것을 믿고 96년 한해에도 안수집사회가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말로만 하는 봉사가 아닌 맘을 쏟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권사회 믿음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권사회 회장 김 석 운 권사

주님 / 오늘 하루 / 마음을 다하고 / 정신을 다하고 / 생각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또 이웃 형제를 통하여 드러나는 / 당신 사랑을 보며
이웃을 저 자신처럼 / 사랑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 실패를 하더라도 외곬로
나아가겠습니다.

(브레오 아침기도 중)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작년보다 나으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계획도 세워보고 실천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우리 권사회에서도 '아침기도'처럼 잔잔하면서도 작은 몇 가지의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써 사신 이 교회는 각 지체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지체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감싸는 책임이 우리 권사회에 있습니다. 한 가정에 사랑과 희생과 봉사는 어머니가 있기에 아버지는 직장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각기 책임을 다하며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듯이, 교회도 율활유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회 697명의 권사들은 각기 있는 곳에서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봉사의 어머니가 되고자 합니다. 각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권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대학부를 소망하며

대학부면의회 회장 손 호 준

1996년을 허락하시고, 또한 새해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비전 2000'의 모든 순간들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신 성령님의 손길에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의 깊은 은혜에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양육을 통해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여름의 많은 사역들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몸으로 직접 느끼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하심이 지극히 크심을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우리들의 기도가 진정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1996년! 우리가 과거의 흘러간 시간 속에 머무를 수 없듯이, 새해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말씀하셨듯이 대학부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 젊은이들이 나아가야 할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구체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는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고, 젊은이들이 비전 가운데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충현 대학부의 지체들은 참으로 경건하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World Christian으로 성장하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며 천국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많은 성도들께서도 대학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대학부가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1부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할 따름입니다

청년1부면의회 회장 김 덕 은

지난 해에는 안으로는 삼풍백화점의 붕괴, 비자금으로 인한 전직 대통령의 구속 등의 큰 사건들이 있었고, 밖으로는 고베 지진이나 음진리교 등의 큰 사건들이 있어서 불안과 놀라움으로 기억되는 한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장 목사님의 사임이라는 아픔을 겪었던 해였습니다. 이 많은 일들로 인해 우리는 이 많은 일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 중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가 있게끔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열매없는 무화과나무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생각으로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느낌들을 모두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한해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청년1부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야 할 것이 있다면 단기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1부 지체들이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단기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을 찾아 국내외로 복음을 전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영성을 키우기 위한 초청집회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작금의 위치를 확인하고,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지 주의 뜻을 찾아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조별 모임, 직장·지역 모임 등을 통하여 더욱 성숙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주의 사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기 보다는 주께서 주의 일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의 해야 할 것을 할 따름입니다.

한해가 또 지나서 다시 한해를 돌아볼 때가 되면 우리의 주인된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청년2부 행함으로, 십자가를 지므로 96년의 소망을 모두 이루도록

청년2부면의회 회장 조 요 섯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청년2부가 하나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감싸주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로…….

1. 매일 정오 12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로 했으니 우리 모두 120명 기도의 용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청년2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무장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여기저기서 피어났으면 합니다. 그리하면 120명이 아닌 그 이상 많은 30대 청년들로 채워주실 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이 기회를 통해 30~39세 되는 분들은 청년2부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또한 청년2부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영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교인은 되었으나,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겠습니까. 젊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에게 안내하고 영접케 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바람일 것입니다.

3. 각 부서 활동이 열매 맺어 성장하는 청년2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전도부에서, 찬양부에서, 편집부에서, 봉사부에서, 친교 신입부에서, 봉사와 헌신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성화되는,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2부 안에서 말씀과 봉사로 잘 훈련되어 생활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들이 있는 곳에 거점이 물러가고 진리가 살아 있도록, 뇌물로 통하는 관례가 정직과 원리원칙으로 변하고, 사람 눈만 피하려는 요행주의가 사라지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써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이익만 추구하는 현실 속에 손해를 볼 줄 아는 청년으로, 어두움이 있는 곳에 착한 행실로 빛이 되고, 외식이 성한 곳이 진실함과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밀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 소망한다

4. 한 가지 더 바램이 있다면 우리들만의 잔치에서 벗어나 어둡고 그늘진 곳, 소외받는 영혼들이 있는 곳을 찾아 위로해 주는 구제의 손길을 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과 따뜻한 사랑으로 입혀주고 영혼이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바램과 소망이 글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므로 96년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마리아전도회연합회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마리아전도회로

마리아전도회연합회 회장 유 순 원 집사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조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마리아전도회는 중현교회의 2, 30대 젊은 여성도는 누구나 회원인데, 아직 참여하지 않았으신 분들은 새해의 귀한 부르심으로 알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 자녀들과 남편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을 줄 아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충성 아니겠습니까. 큰 일은 하지 못해도 틈틈이 기도하며 전도하고 힘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으실 곳이 전도회입니다. 직장을 다녀서 시간이 없는 분은 기도와 물질로 도우십시오. 각 지회는 군목으로 수고하는 분들을 지원하여 군전도를 할 수 있고, 각 교구에 있는 병원의 원목, 농어촌 교회의 목사님들을 기도로 밀고 돕고 있습니다.

새해엔 각 지회가 지원하는 교회의 행편을 상세히 알아보고 물질뿐 아니라 그곳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논하여 연합회 차원에서 도울 것입니다. 또한 교구 특성에 맞는 전도 방향을 잡아 일한다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연합회와도 의논하여 현재 심각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 문화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기독교문화로 바꾸는 데 힘을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 하도록 주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게 합시다.

교회안에 다름이나 수군거림이 없도록 조심하고 서로의 영혼을 살리는 말, 은혜를 나누는 말을 하도록 깨우치고, 보통 상식적인 윤리를 뛰어넘는 참 사랑의 실천과 섬김과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돕기를 원합니다.

머리인 예수님의 각 지체로서 갖는 깊은 유대감은 우리 전도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주를 섬겼던 많은 여인들처럼(눅 8:1-4)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는 마리아전도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루디아전도회연합회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하게
최선을 다했던 루디아처럼

루디아전도회연합회 회장 전 경 금 집사

주님 앞에 부끄러운 딸로서 감히 중현의 루디아 앞에 서서 소망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주님앞에 해드린 일이 너무 없는데 어떻게 중현의 루디아들에게 무엇을 소망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부족한 도구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셨다면 조심스럽게, 그대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평소에 아쉬워하고 마음아팠던 순간들이 있었기에 이 시간 그 마음을 펴보여드리면서 부탁도 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루디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자주 장사를 하면서도 안식일을 맞아 기도처를 찾고 있던 주의 종들을 기꺼이 청하여 자신은 물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복을 받았으며 강권하여 그 처소에 머물게 하고 주의 종들을 도와드린 지혜로웠던 여인 루디아,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한 역할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대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들이기에 선대에 믿음의 여인들을 본받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너도 나도 자원하는 심령들이 되어서 기쁨에 찬 새해에 새출발하는 루디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신년이 되면 전도회에 회원들이 되었고 한달 한달 모이고 헤어지기를 채바꿔들듯 별 의미없는 시간이라고 투정하시는 분에서부터 나름대로 기쁘게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까지.....

회고해보면 이 사회가 비록 문명의 이기와 개인주의가 팽만한 가운데 있다고는 하

지만 어느 사이에 우리 회원들에게도 전도회 모임을 다른 친목 모임과 동일한 선에 놓아 전도회는 자신과 아무런 약속이 없을 때나 나와주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으로 놓여진 것이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적어도 전도회는 1개월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날이요, 비록 신안건이 없다 할지라도 시간과 물질과 기도로써 하나님 일에 참여한다는 그 기쁨이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높고서 매사를 결정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다 더 생기있고 활발한 루디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루디아는 임역원들만의 루디아가 아니며, 어느 소수 사람들을 위한 모임도 아닙니다. 만 40~49세된 우리 교회 여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또 참석해야 하는 하나님을 위한 루디아입니다. 새해에 전도위원회에서는 '주부문화캠프'를 비롯한 직접 간접의 전도전략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방관자가 되지 말고 모두 참여하여 서로 유익을 나눌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자연스럽게 인도하여 생명의 구조선에 함께 승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말씀 속에 기록된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하게 최선을 다했던 루디아처럼 오늘의 우리들도 혼탁한 이 시대에 긴급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명령 - 복음전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맛을 잃은 곳에 소금이 되어 주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주는 루디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와 다스곳이 머릿속일 때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해를 살어드린 감격의 96년말을 맞을 수 있는 지혜로운 루디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스더전도회연합회

1996년 새해에도

우리는 복음전파의 사명을

에스더전도회연합회 회장 명 정 옥 권사

1996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복음전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명은 죽는 날까지 쉬임없이 해야 하는 성도의 책임이요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의 특성 중 하나가 남자 성도에 비해 여자 성도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수가 많은 만큼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큰 것입니다. 많은 여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도회에 참여하여 이 복음전파의 절대적인 사명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스더전도회는 50-59세의 여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해에는 먼저 참여하는 전도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방관자도 있어서는 안되며 내가 없으면 안된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더하고 덜하고가 없는 똑같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성경 말씀을 따라 힘들어도, 또 조금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일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로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전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수없이 넘어지고 깨어지며 전도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려는 각오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한한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일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연초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여 1996년이 끝맺어지는 시점까지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명에 충실한 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전도회연합회

쉬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십자가의 용사로

한나전도회연합회 회장 김 용 섭 권사

'96년 소망과 희망의 새해를 열어주시고 어두움 몰아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급속도로 변하는 21세기를 뛰어넘는 성도 개인개인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소원들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명령 따라 오직 '우리의 소원은 통일' 복음으로 남북통일을 조속히 이루어 김창인 원로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다함께 저 북녘 땅까지 올라가 사랑하는 동포 형제자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부흥회하기를 원합니다.

교파를 떠나 범교단적으로 소외된 노약자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즉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사업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기에 힘쓰는 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회 임원과 회원 모두 믿음으로 마음이 하나되고 뜻을 다하여 사랑으로 동체 우리들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을 상기하여 땅끝까지 내 종인 되라는 명령을 실천하는 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믿음·소망·사랑이 장성하여 언제나 주님께 헌신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담당

새해에 소망한다

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날로날로 부흥 발전하는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다시금 저희들에게 중차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롭도 없이 빛도 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도회연합회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베드로전도회연합회 회장 김철환 집사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바뀌었다 해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의 사명은 변함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도회원 여러분, 그리고 총현교회 40대 남성 신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96년도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전도회 공동체 모임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화목할 것을 소망합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되어 뭉쳐진 공동체 능력은 전도활동에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신도로서 당회의 목회방침과 전도위원회의 모든 교육 및 활동지침에 대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아멘"으로 순종하여 각종 교육과 훈련, 율례회의 등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보다 충성된 전도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1월 14일 15:30 갈릴리홀에서 1996년도 전도위원회에 대한 교육 및 특강이 시작됩니다).

금년에는 대규모적인 전도대회나 연합회 전체적인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대신 각 교구별 전도회 중심으로 전도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전도위원회나 연합회에서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구별 전도회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지원교회나 지원처를 한 곳씩 각 교구별 전도회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간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활동의 중심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진행되기 위하여는 각 전도회 회장 및 임직원들께서 계속적인 기도와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회원 및 40대 남성 신도 여러분께서는 전도회 모임에 적극 참석하셔서 임직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자 나이 40대 중년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때입니다. 특히 교회의 각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40대 남성 신도들은 우리 교회의 기둥감이고 자랑감입니다.

금년 한해도 베드로전도회 활동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베드로남전도회 회원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요한전도회연합회
우리 26지회 모두는
경쟁자 아닌 협력자

요한전도회연합회 회장 박원화 집사

1996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총현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총현교회도 주님 안에서 성령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주님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요한전도회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요한전도회는 39세 이하의 모든 젊은 남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셔서 각 지회의 전도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6년도는 젊은 요한전도회가 활성화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보고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총현교회의 요한 26지회는 모두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협력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금년 한해는 전도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각 지회장들에게 전하며 또한 연합회에서 의논한 모든 안건을 전도위원회에 전함으로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바쁜 30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건설에 앞장서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전도하는 요한 26지회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전도회원은 소속감을 가지고 미래가 있는 젊은 전도대로서 패기 만감이 나 열심을 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충성하며 순종하는 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주 <주간총헌> 제350호를 바로 잡습니다.

- 7면 / 1단: '지금도 주일날이 되면' → '지금은 주일날이 되면'
- 3단: '명지대학교였다.' → '명지대학교회였다.'
- 4단: '7년 4개월의 교구사역은' → '7년 4개월의 교구사역은'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그럭저럭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의 기준을 항상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적인 쾌락에 두고 자기의 행복을 논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돈 많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불행해지는 것을 볼 때에 역시 행복이란 외형적인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잠 3:33)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성경은 성도들이 반드시 행복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행복은 저 높은 곳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며 항상 다른 사람에게만 붙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은 가만히 앉아서 절로 굴러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행복은 찾으면 누구에게나 찾아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그 사랑이 깊고 신뢰할만한 것일수록) 엔돌핀

■ 칼럼 ■

행복하십니까

김찬곤
(목사, 교구위원회 · 제3교구 지도)

이 샘솟고 깊은 행복감에 젖어든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몸과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료됩니다. 비로소 참된 의미의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며 날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멜로디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 행복해지기

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올해에는 성경의 바다에 노저어 나아가 봅시다. 그곳에서 나

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은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불행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의 삶은 출발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1996년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올해는 무엇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수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한 사람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들끓었다고 자랑하고 나섰지만 이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보나 이 「스승의 집」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작은 집에서 사시지요?"라고 물었습니다.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진실한 친구들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나?"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나아가 행복한 사회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봅시다.

를 향한 행복의 음성을 간직해 봅시다. 또한 가진 것이나 세상적인 지위 같은 것이 비록 하나도 없어도 온 식구들이 오순도순 모여 앉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살아간다면 바로 내가 가장 큰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신 10:13). 그곳에서부터 참 행복이 나타날

◀ 새해를 여는 시 ▶

활짝 열린

대망의 새해 새아침

태풍앞에 갈대처럼 마구 흔들던 '95
나라 안팎의 혼돈과 격동의 한해
속이고 속고 쫓기고 쫓아 살아온
하늘아래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되며
자신을 위장하고 허위아래 숨은
여호와를 피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어두운 장막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삶의 무게만큼 죄를 담은
실타래같이 엉킨 마지막 '95
십자가위 예수는 말이 없는데
왜 이리 세상은 요란하고 시끄러운지
허와 실 두 개의 틈바귀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 안에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한 장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한해
수많은 시간 우리 곁을 스치고
용서치 못한 빚만 자신을 회개하며
얼룩진 불신과 미움 경멸과 억압
하늘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숙인 지친 나그네
새해 새 빛을 보고 감사와 사랑을 나누
게 하소서

독바로 건지 못하고 결길로 갔던 많은 시간
참된 안식처를 잃은 채 방황하던 죄인
개인의 안일을 추구하며 강요하던 기도
저마다 가슴을 채우던 욕구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닮으면서
다짐은 마귀의 줄개되어
죄를 달게여겨 허물에 감추인 양심
욕심이 태산을 이룬 지난날 용서하사
새해 알리는 당신의 파수꾼으로 사용하
옵소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린 '96 새해 새 아침
교회확장 민족번영 세계가 조화를 이루며
마지막 때 들림받는 기도하는 충현의 성도
시간의 징검다리 건너 도약하는 21세기
조심히 내디디는 한해 맞이하게 하옵소서

어두움이 싫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새 하늘 새 땅 창조하신 아버지
수없는 나날 지나 녹슨 우주공간에
어두움 몰아 다시 빛난 찬란한 저 태양
참빛 보내시고 참빛으로 찾아 오셨네

아직도 하늘이 맑고 푸르웁은
30대 큰 사랑의 빛이 있기에
생명의 날개타고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는
영광의 '96 평화의 '96 하나님 뜻 이루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대망의 새해
새 아침
이천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
옵소서

김운섭
(집사, 초동3부 교사)

<주간충현>

은 우리 충현의 가족들이 서로 만
나고 대화하는 장입니다. 또한 외
적으로는 우리 충현교회의 얼굴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
서 우리는 큰 애정과 깊은 사랑으로 <주간충현>을 만들려고 합
니다. 모든 충현인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대하면서 1996년의 <주
간충현>의 기본 편집방향을 알려 드립니다.

제 1 면

① 뉴스

기사작성 원칙에 충실하되 특별히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의 중요성을 공감토록 하고 동
참하고자 하는 마음과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밖의 소식 중 전 기독교인이 동참해
야 하는 일과 교단의 일 중 중요한 것
과 충현교회가 관련된 일들을 알려드
리겠습니다.

② 이 사람을 만나보니

전 교인을 대상으로 교회 내의 행
사 또는 교회 밖의 삶 등을 통해 우리
에게 신앙적인 신선한 자극과 하나님
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③ 카메라 초점

많은 글보다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더 잘 설명해줄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게재, 사
신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분명한 사실
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④ 이달의 행사

매달 첫주에는 그 달의 행사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게재함
으로 자신의 월간 계획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⑤ 원로목사 및 당회장 동정

원로목사 및 당회장의 동정을 알려 드림으로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충현 1면 게재원칙>

- ① 전 교회적 행사 및 이와 관련된 내용
- ② 부분 행사라도 전 교인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내용
- ③ 전 교회적 광고(예, 공동의회 소집 등)
- ④ <주간충현> 편집실 광고
- ⑤ 돌출광고(Box)는 이와같은 경우 외에는 전면 금하려 합
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 2 면

① 충현강단

당회장 목사의 수요예배 강해 및 기타 성경강해를 신뢰 많은
사람들이 읽어 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아름다운 편집을 하겠
습니다.(현재는 김창인 목사의 시편강해를 싣고 있음)

② 만평 또는 주요 광고

간혹 2면 특성상 편집의 지루함을 해결하기 위해 만평이나
중요한 광고사항을 오른쪽 하단에 실을 수도 있습니다.

제 3 면

① 충현 칼럼

고정 칼럼원으로 분기별로 칼럼위원 3~5명을 선정하여 집필
토록 할 계획입니다.

② 독자석

독자들의 참여난으로 간증, 수필, 시, 제언 등과 또한 시의에
적절한 계몽, 교육적 내용(예, 성찬의 자세, 감사에 대하여 등)
으로 편집하겠습니다.

③ 기획특집

교회력에 따른 절기나 기념일, 특별행사 및 편집실 주관하에
특집을 기획하여 심도있는 취재 및 집필로 독자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도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④ 책소개

신앙생활에 유익한 책들을 신구간을 망라하여 소개, 독자들
의 신앙생활을 돕고 독서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⑤ 제안코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며 함께 신앙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요구를 수렴하여 교회와 성도들간에 작은 사랑의 징검다
리 역할을 감당해나가겠습니다.

⑥ 만평

한 컷의 그림과 함축된 메시지를
통해 사진과는 또 다른 충격과 감동
으로 독자들의 가슴 속으로 다가서겠
습니다.

⑦ 징검다리

교역자들이 목회현장에서 체험하
는 따끈따끈한 회노애락의 감동들을
진솔하게 전해드립니다.

제 4 면

① 토막소식

각 교구나 부서들의 생생한 활동
사항을 통신원(객원기자)이나 각 부
서에서 발행하는 주보 등을 통해 모
든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성껏 전달하겠습니다.

② 우리는 지금

부서 및 각 모임을 소개하는 자리로 부서 전체를 소개하기보
다는 그 부서 및 모임의 특성 및 활동적인 모습을 집중적으로 소
개하여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교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③ 이런 일은 고집시다

제안코너와는 달리 편집실의 눈으로 포착한 잘못된고 있는
일들이나 개선될 사항을 조금씩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④ 장로·교역자 동정

원로장로, 시무장로 및 교역자의 동정을 알림으로 서로의 교
제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싶습니다.

⑤ 선교지 소식

보다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선교지 소식을 전달하여 은혜를
나누고 선교사님들의 수고에 기도로 동참하게 하며, 주님의 복
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⑥ 키우자 천국일꾼

각 교회학교나 세미나, 교육현장의 소식, 기타 교육적인 면을
부각하여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일에 활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 드러난 이야기보다는 숨겨진 훈훈한 이야기를
포착하여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출판국에는 출판국장 조선근 장로와 출판국 위원 정운
석·정정주 장로, 출판국 지도 조동원 목사와 부지도 변준옥 전
도사가 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출판국 전체의 운영과 <주간
충현>에 대한 편집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를 위하
여 변준옥 전도사(편집 주간)와 이형수 집사(편집장), 이종희 선
생과 차미선 선생이 있습니다. 출판국에서는 <주간충현>외에도
<계간충현>, <충현의 만나>, 매 주일 <주보> 등 정기간행물과
원로목사와 당회장의 설교, 강해집 등 단행본도 발간합니다.



토막소식

◆ 유치부는 96년도에 찬양대원으로 수고할 어린이를 모집하고 있다. 기간은 1월 14일까지이며 각 1부와 2부로 나누어 40명씩 모집하고 있다. 또한 1월 21일에는 열매과 주관으로 연구수업을 펼친다.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고 있다.

◆ 초등1부에서는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려는 어린이를 기다리고 있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어린이는 찬양 연습실(교 305호)로 오면 된다.

◆ 중등2부는 겨울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긴 겨울방학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겨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마음을 정하여 남은 방학을 정리하는 것과 새 학기를 알차게 준비토록 계획하고 있다. 주제는 '성경의 생활화'이며, 시간은 1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이다. 장소는 충현기도원.

◆ 중등3부는 1월 12일(금)과 13일(토)에 걸쳐 충현기도원에서 임직원수련회로 모였다. 중등3부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일하게 될 임원, 찬양대, 반장, 소그룹 멤버가 참여하여 중등3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각자의 맡은 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힘차게 내려왔다.

◆ 대학부 면려회 회원(둘배개) 20명은 전북 남원에 위치한 안동성교회에서 겨울성경학교를 지원하며 축호전도를 실시하여 복음을 전한다. 기간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간.

◆ 에바다부는 1월 첫주부터 매주일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에바다부실(교육관 109호)에서 교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준우 강도사의 인도로 '소리 없는 세계를 향하여'와 에바다부에서 자체 개발한 공과를 가지고 하고 있다.

◆ 선교위원회에서는 28일 선교주일을 지키며 특별찬양을 위하여 오늘(14일)부터 매주일(21일, 28일) 찬양 연습을 한다. 모임 시간은 오후 3시, 장소는 베다니홀이다. 선교위원회 실행위원, 기도회원, 선교연구원생(1-4기 수료생 포함) 전원은 한 명도 빠짐없이 찬양 연습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새가정부 집회시간 변경

그동안 오전 11시에 교육관 201, 202호에서 모임을 가졌던 새가정부의 집회시간이 변경되었다. 현재는 이전보다 30분이 빨라진 오전 10시 30분에 같은 장소(교육관 201, 202호)에서 모이고 있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목사를 속히 허락하소서.
2.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이 올 한해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며, 영력을 더하여 주소서.
· 19일(금) 청지기훈련 강의.
3.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더욱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4. 새롭게 임명된 일꾼들이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5.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6.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에게 영육간의 양식이 제공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소서.
7.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서만수 선교사의 건강이(신장)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8. 경로심방을 받는 성도들에게 올 한해에도 건강과 능력을 주시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준비 잘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소서.
9. 청지기훈련(1차: 19일, 2차: 26일) 통하여 새롭게 결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강의하시는 원로목사님과 윤영탁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소서.

이 사람을 만나보니 / 은퇴한 박인세 · 임봉남 장로

모두가 하나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지난달 12월 31일로 시무장로로 봉사하던 박인세 장로와 임봉남 장로가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었다. <주간중헌> 편집실에서는 두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시무장로로 봉사하시다가 은퇴하게 되어 남다른 감회가 있을텐데 느낌을 한마디 해주시지요.

박인세 장로 / 그게 감사할 뿐입니다. 만민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도 큰 은혜인데 이처럼 좋은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13년간이나 봉사하게 된 것만도 큰 감사입니다. 그동안 좀더 충성스럽게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많이 생각나서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교회와 교우들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봉남 장로 / 박 장로님 말씀대로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무장로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좀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은퇴한다니 무척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 그동안 시무장로로 일하시면서 기쁘고 즐거웠던 일이나 또는 섭섭하고 가슴 아팠던 일들이 있었을텐데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지요.

박인세 장로 / 저는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중구 충무로 5가)로 이사와 교회를 정하려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던 중 충



임봉남 장로

박인세 장로

현교회(당시 충무로)에서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아 바로 이 교회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후로 저는 충현교회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보람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충현교회가 이처럼 부흥성장한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또한 어려웠던 것은 김창인 목사님 곁에서 자란 두 분의 목사님이 불편한 가운데 떠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임봉남 장로 / 제가 봉사한 분야는 주로 회계부분이었습니다. 15년간 회계부분에서 봉사하면서 큰 감사가 된 점은 우리교회 예산의 약 70%가 십일조라는 점입니다. 이는 교회 교인들의 신앙수준도 될 수 있고 우리교회의 신앙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한 헌금을 다루다 보니 헌금위원들이 조심스러운 마음과 정확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간혹 교인들에게서 십일조를 냈는데 왜 없느냐? 어떻게 교회를 믿고 헌금하느냐? 등의 심한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십일조를 감사헌금으로 집계했다던가(분명하게 십일조라고 기재하지 않았기에) 하는 경우로 판명됩니다. 서로 믿고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은퇴하시게 되어 교회에서의 공적인 봉사임무를 부여받지 못하지만 봉사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자발적인 봉사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박인세 장로 / 이제부터는 더욱 열심히 나라와 교회와 교역자들과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일들과 복잡하고 분주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단순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임봉남 장로 / 재정위원회 안에 헌금수납과 헌금집계하는 분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주일(부예배)부터 저녁 찬양예배 끝날 때까지 일을 해야 끝나지요. 정식임명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재정위원회에서 허락한다면 자원봉사자로 주일 중 가장 바쁜 시간인 II, III, IV 부 예배에 봉사해 볼까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부탁하실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 주시지요.

박인세 장로 / 저는 이번에 은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동료 장로님들, 23대 장로님들, 교구, 교회학교, 교역자들, 교인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따뜻하게 격려의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뿐입니다. 당회원들과 교역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과 성령 안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큰 부흥과 발전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임봉남 장로 / 박장로님 말씀대로 모두가 하나로, 즉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되어 간다면 진정한 성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열을 올리며 울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바른 동기를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이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바른 성장과 발전이 있을 것이다.